

# 목포석현초, 전통 시장과 함께하는 '석현둥이' 경제교육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젝트 실시 경제활동 체험교육·전통시장 홍보효과 동시 기대

목포석현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 능력 신장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연계한 석현둥이 경제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4학년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고 전통시장에서 만원으로 현명한 소비를 체험하였으며 5학년에서는 한그릇 음식 만들기 계획을 세운 뒤 이에

필요한 재료를 시장에서 구매하여 모듬별로 요리 실습을 하였다. 또한 6학년에서는 시장에서 산 물건이나 음식을 친구에게 선물하며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석현둥이 경제교육 프로젝트에 참여한 5학년 한 학생은 "청호시장에 이런 물건들을 파는 지 잘 몰랐는데 이것 저것 사고 둘러보니 뭐가 무엇이 있는지 많이 알게됐다. 친구들

과 장을 봐서 조금 더 친해졌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4학년 한 학생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무언가를 사기 위해 계획하고 소비를 하는 게 경제관념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친구들과 더 많이 경제활동을 경험하고 싶다."고 밝혔다. 본교 박갑기 교장은 올해 처음 실시된 석현둥이 경제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와 가까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불어 올바른 경제 생활 습관도 기르게 되어 기쁘다며 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본청과 시장 관계자들,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함평월야초, 초록빛 지구 위한 '알뜰장터' 실시



함평 월야초등학교는 최근 본교 전교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키는 '월야 알뜰장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파랑새지치회(학생회)와 지구방위대(환경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며 아나바다 실천의 장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수익금 전액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알뜰장터가 올해 다시 열리게 되면서 학교와 마을 주민, 학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초록빛 지구를 위한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디뎠다.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행사의 취지에 걸맞게 준비 과정과 운영 방식 또한 친환경적이었다. 월야초 학생들은 버려지는 박스를 재활용하여 상점 간판을 만들었으며, 비닐봉투 대신 집에서 가져온 장바구니와 보조가방을 들고 다니며 쇼핑을 즐겼다. 또한 먹거리 코너에서는 일회용기 대신 집에서 가져온 다회용기 그릇에 떡볶이와 어묵을 담아 먹음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장터에서는 학생들이 '지구공' 어플을 통해 환경사랑 미션을 수행하며 1학기부터 꾸준히 모아온 지구공 포인트를 '지구사랑 통장'에 적립하여 현금처럼 사용함으로써 환경사랑 실천의 보람도 느끼고 실천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함평=김광춘기자

## 진도교육청, '2022 문화다양성 어울림 한마당' 개최



진도교육지원청은 지역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문화다양성 어울림 한마당을 진도초등학교 철마관에서 개최하였다. 초·중학생 및 교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문화다양성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 역량을

### 초·중학생 및 교원 등 400여명 참석

기르기 위해서 준비하였다. 다문화교육 전문 선생님들과 진도군 가족센터 협조를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진도교육지원청은 다양한 문화어울림의 일환으로 다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세계음식 문화체험(월남쌈, 반미), 다블, 다미큐브, 릴레이토르, 토끼웃입히기, 드래곤볼 놀이, 춤추는 동물 만들기, 다루마오토시, 와나게 등 13개의 체험부스를 준비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평소 게임만 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손발로 직접 하는 놀이는 색다른 재미를 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학생은 "같은 반에 나와 피부색이 다른 학생이 있는데 놀이를 통해 그 친구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또 부스를 운영한 석교초 교사 윤OO는 많은 학생들이 즐거워 해서 참 좋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였다. 오미선 교육장은 "이번에 개최한 문화다양성 어울림 한마당이, 우리지역 학생들이 피부색이나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글로벌 마인드를 이번 체험뿐만 아니라 평소 학교에서도 길러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여수 울춘초, 도깨비 마을 김성범 작가와 만남

여수 울춘초등학교에서 지난 8일 섬진강 도깨비 마을 김성범 작가와의 만남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은 김성범 작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저학년, 고학년 학생들에게 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먼저 어색한 첫 만남을 깨기 위해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김성범 작가는 도깨비 마을 속 사진과 다양한 놀이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사는 마을을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학년은 제목이나 그림



만 보고 이야기를 상상해 보고, '책이 꿈지락꿈지락', '도깨비 닳당이' 책을 같이 읽어보고 생각을 나누었다.

여수=김현근기자

## 관내 중학교 1~2학년 학생 35명 대상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관내 중학교 1~2학년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2022. 문화예술 진로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2022 꿈을 찾는 진로캠프는 문화와 예술을 연계하여 문화와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진로캠프는 오전에 남포미술관을 관람하며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작품 이해와 더불어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으로 이동하여 큐레이터의 설명으로 고흥의 분청사기의 역사이해하기, 작가

선생님과 함께 분청사기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진로캠프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미술관 속 예술작품들을 접하며 작가분들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몇 개 분야에만 국한된 진로캠프가 아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진로캠프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



로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교육지원청은 11월 24일에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